

잇몸야구로 6연승 질주… KIA 상위권 ‘정조준’

주중 키움·LG 6연전 예고

대체자원 활약 반등 기회
선두권 진입에 ‘체력 변수’
“울스타까지 버텨주기름”



주전들의 줄부상에 잇몸으로 버티던 KIA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정규 시즌 반환점(72경기) 성적표는 놀라움 그 자체다. 주축 선수들의 복귀까지 승률 5할도 장담하기 어려웠던 KIA가 대세선수들로 올 시즌 첫 6연승을 질주, 어느새 4위까지 도약하며 우승을 향한 선두권 싸움까지 넘보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되찾기 위해서는 후반기 부상자 복귀를 앞둔 울스타 휴식이 전까지 KIA의 경기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NC전 첫 경기에서 패배한 KIA는 나머지 2경기를 모두 승리했고, 지난주 평일에는 광주에서 중위권 경쟁자 KT와의 3연전을 씩씩이 하면서 활짝 웃었다. 주말 SSG와는 1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1승 1무로 연승을 이어갔고 한 주한 주 경기차를 좁힌 끝에 어느덧 1위 한화 이글스와 4.5 경기차까지 쫓아왔다. 23일 기준 38승 2무 33패·승률 0.535로 4위에 오른 KIA는 2위 LG 트윈스와는 3.5 경기차, 3위 롯데 자이언츠와는 2.5경기차 밖에 나지 않아 시즌 초부터 굳어졌던 ‘3강’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기회다.

KIA는 24일부터 키움 히어로즈와 27일부터 LG를 상대한다. 키움은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21승 2무 53패·승률 0.284로 최하위를 기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지난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신한 SOL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원정 경기를 승리로 마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록하고 있는 키움은 9위 두산(29승 3무 42패·승률 0.408)과도 9.5 경기 차이가 날 정도로 부진하고 있다. 심지어 팀 타율 0.231, 출루율 0.301, 장타율 0.335로 모두 최하위인 키움은 타격 WAR(대세선수대비기여수)이 -0.96으로 리그 내 유일한 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KIA는 최근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에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키움을 상대로 많은 승수를 쌓고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KIA가 27일부터 뒤이어 만나는 팀은 LG다. LG는 42승 2무 30패·승률 0.583으로 리그 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시즌 초부터 맹렬히 질주 중인 LG는 투타 모두 리그에서 손꼽히는 전력으로 올 시즌 WAR이 압도적으로 1위(19.63)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개막 이후 단 6일을 제외하곤 단독 1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LG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4승 1무 5패(5위), 팀 타율 0.265(7위), 평균자책 5.24(8위)로 KIA(최근 10경기 7승 1무 2패, 팀 타율 0.279, 평균자책 3.38)와 비교해 모든 수치가 낮다.

변수는 KIA의 마운드다. 이달 들어 KIA가 7할 승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6월 평균자책 3.19를 비롯해 선발피OPS

, 볼펜ERA가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이 주효했다.

하지만 KIA는 지난 주말 SSG전을 포함 수도권에서 원정 9연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쉬는 날이 없거나 이동이 잦다 보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남은 시즌 뻘뻘한 일정이 최대 변수라고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장마 기간으로 28일 비가 예보돼 있어 더블헤더까지 끼어 있다면 더 힘에 부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운드가 강하지 않으면 버텨내기 쉽지 않다. 타선의 지원이 뒷따라주지 않을 경우 두 세경기를 연달아 던져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

2025 KBO리그 순위		(23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한화	73	43	29	1	0.597	0.0	
2	LG	74	42	30	2	0.583	1.0	
3	롯데	75	41	31	3	0.569	2.0	
4	KIA	73	38	33	2	0.535	4.5	
5	삼성	74	38	35	1	0.521	5.5	
6	SSG	73	36	34	3	0.514	6.0	
7	KT	75	37	35	3	0.514	6.0	
8	NC	71	32	35	4	0.478	8.5	
9	두산	74	29	42	3	0.408	13.5	
10	키움	76	21	53	2	0.284	23.0	

문에 볼펜의 부담도 훨씬 크다. 그렇기에 선발투수가 오래 버텨주지 않는다면 원정 9연전은 악몽이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KIA의 선발진은 컨디션이 좋은 상태다. 제임스네일(평균 자책 2.68), 김도현(3.02), 아담 올리(3.03)는 올 시즌 초부터 꾸준히 제 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윤영철은 시즌 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달 들어 3경기 평균 자책 2.81로 컨디션을 되찾은 분위기다.

이범호 KIA 감독은 “울스타브레이크가 오는 다음달 10일까지는 이의리도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까진 지금과 같은 선발 로테이션으로 가야 한다. 울스타브레이크 기간이 6일에 월요일 쉬는날까지 포함하면 마지막 경기에서 던졌던 투수들이 최대 열흘까지도 쉴 수 있다”면서 “이의리가 돌아오는 시점을 고려해 상황이 주어진다면 선발투수들 한번씩 빼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울스타브레이크 전까지 체력적으로 힘든 거 알지만 버텨줘야 하는 시기니까 힘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 김도영·박찬호·최형우 울스타전 베스트12 확정

KIA 타이거즈 박찬호와 김도영, 최형우가 2년 연속 ‘별들의 잔치’ KBO 울스타전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나눔 울스타 유격수 부문 박찬호에 이어 김도영(3루수), 최형우(지명타자)가 각각 선정됐다.

박찬호는 총 93만7896의 팬 투표와 선수단 141표를 받아 30.62점을 얻었고 김도영(109만9680 팬 투표·선수단 70표)도 27.78점을 받았다.

지난해 최고령 울스타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최형우(KIA 타이거즈)는 총점 32.98점을 기록, 32.71점의 문현빈(한화)을 근소한 차로 제치고 나눔 울스타 지명타자로 뛰게 됐다. 이로써 최형우는 4년 연속 울스타 베스트12 등극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선발투수로는 평균자책(2.04), 다승(10승), 탈삼진(141개), 승률(1.000) 부문에서 리그 내 1위에 올라 있는 코디 폰세(한화)가 52.18점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뽑혔고 중간 투수와 마무리 모두 한화 박상원, 김서현이 나란

히 차지했다. 특히 김서현은 역대 팬 투표 최다 득표인 178만6837표를 얻으며 KBO 울스타전 ‘팬 투표 최다 득표자’가 됐다. 포수와 1루수는 LG 트윈스의 박동원과 오스틴, 2루수는 NC 다이노스 박민우, 외야수는 LG 박해민과 한화 플로리얼, NC 박건우 등이다.

나눔 울스타와 맞설 드림 울스타에는 선발과 중간 투수로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과 배찬승, 마무리는 롯데 자이언츠 김원중으로 결정됐고 포수와 1루수는 삼성 강민호와 디아즈, 2루수는 롯데 고승민, 3루수는 SSG 랜더스 최정, 유격수는 롯데 전민재, 외야수는 삼성 구자욱과 롯데 레이에스, 윤동희, 지명타자는 롯데 전준우 등이다.

나눔 울스타는 KIA 이범호 감독, 드림 울스타는 삼성 박진만 감독이 이끈다. 양팀 감독은 13명씩 총 26명의 추천선수를 선정해 추후 발표한다.

한편 KBO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KBO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팬 투표를 진행했고 팬 투표 70%,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베스트 12를 확정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체고 배드민턴부, 대통령기 전국종별대회 금·동 획득

광주체육고등학교 배드민턴부가 ‘2025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겸 제33회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선수 선발전’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광주체고는 지난 14~21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과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해 고등부 혼합복식과 여자 개인복식에서 메달을 따냈다.

광주체고 여서영(1년)은 전대사대부고 현수민(3년)과 짝을 이뤄 출전한 고등부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서영-현수민 조는 결승서 강승현(구미시체육회)-곽민아(청송여고) 조를 만



광주체고 배드민턴부 김나연(왼쪽부터), 여서영, 이나라

광주체고 제공

나 2-0(21-17, 21-18)로 완파했다.

광주체고 이나라(3년)와 김나연(2년)은 여고부 개인 복식에서 동메달을 차지

했다. 이나라-김나연 조는 준결승서 문인서-한승연(이상 전주성심여고) 조에 1-2(15-21, 21-19, 18-21)로 패해 공동 3위에 그쳤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단체팀과 개인단식 102팀, 개인복식 53팀, 혼합복식 40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번 성과로 광주체고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에서도 청신호를 밝혔다.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은 “이 여세를 몰아 제106회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홍명보호, 동아시아컵 23명 명단 발표

내달 7일부터 중국·홍콩·일본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홍명보호가 7월 치러지는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아컵)에 참가할 23명 명단을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동아시아컵(7월 7~16일)에 출전하는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시아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는 만큼 국외파 선수들은 출전 의무가 없다.

이에 홍명보호감독은 국내 K리그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단을 꾸렸고 이 가운데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3명이고, 나머지 20명은 K리그(K리그1 19명·K리그2 1명) 소속 선수다.

홍 감독은 2023년 6월 이후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던 공격수 나상호(마치다 젤비아)를 2년 만에 호출했다. 그는 A매치 28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고 2022년 동아시아컵 때도 출전한 바 있다.

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활약한 스트라이커 오세훈(마

치다 젤비아)을 비롯해 K리그1에서 가장 발끝이 뜨거운 공격수 전진우(전북)도 불러들였다.

특히 홍명보호에서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박진섭(전북)과 김봉수(대전)가 선택받았고 장신 스트라이커 이호재(포항)에게 첫 태극마크를 달아줬다.

이호재와 함께 김태현(가시마), 변준수(광주), 서명관(울산), 김태현(전북),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 7명이 처음 대표팀에 승선했다.

홍명보호는 7월 7일 오후 8시 중국, 7월 11일 오후 8시 홍콩, 7월 15일 오후 7시 24분 일본(이상 용인미르스타디움)과 차례로 맞붙는다. 민현기 기자